

제 104 회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

(문제지)

※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

급수	사범급	유형	A형	수험번호		-		-		-		
문항수	200	객	50	성명								
		주	150									
시험시간	120분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문제유형(A, B)를 <예시>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 답안지의 주·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정방법:
 -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
 -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객관식과 주관식 구분)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예시>

문제유형	
A형	●
B형	○

■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 운영기관



社團 漢字教育振興會

韓國漢字實力評價院

제104회 한자실력급수 [사범급] 문제지

객관식 (1~50번)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芑] ① 繆 ② 蕪 ③ 耨 ④ 摹
2. [櫛] ① 顛 ② 倏 ③ 嘯 ④ 涑
3. [拈] ① 殮 ② 箝 ③ 恬 ④ 佞
4. [鞋] ① 嵇 ② 濯 ③ 醢 ④ 孩
5. [葳] ① 喘 ② 輜 ③ 侗 ④ 馳

※ []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

6. [栳] ① 穢 ② 昱 ③ 勛 ④ 毓
7. [眇] ① 杳 ② 眇 ③ 鈔 ④ 昂
8. [悍] ① 狠 ② 罕 ③ 捍 ④ 很
9. [嚙] ① 閭 ② 佞 ③ 狺 ④ 慙

※ []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

10. [爬] ① 搔 ② 挾 ③ 捲 ④ 抹
11. [跛] ① 躁 ② 蹲 ③ 蹇 ④ 踵
12. [魃] ① 矚 ② 盼 ③ 暝 ④ 旱
13. [嫵] ① 娜 ② 孀 ③ 姐 ④ 媠

※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

14. ① 銜 ② 衍 ③ 銜 ④ 衡
15. ① 爻 ② 肴 ③ 爽 ④ 爾

※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6. ① 跌宕 : 질탕 ② 唼串 : 갈곳
③ 蠱毒 : 고독 ④ 塼塔 : 전탑
17. ① 些略 : 사략 ② 禪衣 : 곤의
③ 鋤犁 : 조려 ④ 肩胛 : 견갑
18. ① 丘壘 : 구릉 ② 徭役 : 요역
③ 口吻 : 구문 ④ 誄詞 : 뇌사
19. ① 困憊 : 곤비 ② 裨益 : 비익
③ 狹窄 : 협착 ④ 稗官 : 비관
20. ① 矧笑 : 신소 ② 嫩晴 : 연청
③ 拿鞠 : 나국 ④ 剃髮 : 체발

※ []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21. 귀납법과 함께 [연역법]은 논리학에서 논리를 추리하는 주요 방법 중의 하나이다.
① 演譯法 ② 延譯法 ③ 演繹法 ④ 延繹法
22. 우리는 대강당의 [층계참]에서 만나기로 했다.
① 層繼站 ② 層階站 ③ 層繼塹 ④ 層階塹
23. 계곡을 따라 [표지판]대로 오르면 절이 나온다.
① 標識板 ② 標識版 ③ 標指板 ④ 標指版
24. 조선 시대에는 봉화나 [파발]이 주요한 통신망이었다.
① 播撥 ② 擺撥 ③ 播潑 ④ 擺撥
25. 체온·[맥박]·호흡의 정확한 측정은 병세를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① 驀撲 ② 脈撲 ③ 驀搏 ④ 脈搏
26.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지]석탑은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① 峯勒寺祇 ② 峯勒寺址
③ 彌勒寺祇 ④ 彌勒寺址
27.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남을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일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① 巫告罪 ② 巫辜罪 ③ 誣告罪 ④ 誣辜罪

※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8. 그는 출세욕이 강하고 마음이 []하여 사 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
① 總攬 ② 奸慝 ③ 掌拒 ④ 粧潢
29. 그는 []만 입은 채 별별 떨고 있었다.
① 蠡測 ② 柳絮 ③ 袂衣 ④ 窘塞
30. 그 사람은 성격이 []해 사람들과 잘 화 합하지 못한다.
① 乖愎 ② 卜筮 ③ 申飭 ④ 粢盛
31. 산속에서 밤이 깊어지자 나는 []의 무리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났다.
① 唐椒 ② 塵寰 ③ 豺狼 ④ 廳舍
32. 그녀는 []하게도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고 말았다.
① 泥濘 ② 鳳雛 ③ 崎嶇 ④ 痲醉
33. 자주독립의 [] 아래 독립군이 조직되었다.
① 瑕疵 ② 惻怛 ③ 範疇 ④ 旗幟

34. 절에서 쓰는 승려의 공양 그릇을 [](이)라고 한다.
 ① 螺鈿 ② 鉢盂 ③ 綸縉 ④ 羹粥

※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

35. 달무리, 햇무리 따위의 둥근 테두리.
 ① 暈輪 ② 邯鄲 ③ 縵袍 ④ 楯形
36.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아냄.
 ① 倉廩 ② 覈得 ③ 精詣 ④ 糟粕
37. 국왕, 조상, 성인이 쓰는 이름, 국호, 연호와 같은 글자를 사용하지 않음.
 ① 避諱 ② 靜謐 ③ 宸念 ④ 椽檻
38. 어떤 일 따위에 간섭하여 말참견을 함.
 ① 幫助 ② 吩咐 ③ 容喙 ④ 諡號
39. 남을 속이어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
 ① 棧閣 ② 春煦 ③ 蹕路 ④ 騙取
40. 이러쿵저러쿵 말하여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음.
 ① 鞦韆 ② 淳樸 ③ 翠黛 ④ 破甑
41. 과세를 피하여 면함.
 ① 訥澁 ② 据置 ③ 逋脫 ④ 嗤侮

※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42. [鴻鵠之志]
 ① 뜬구름과 같은 일시적인 부귀공명을 바라는 마음.
 ②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
 ③ 크고 높게 품은 뜻.
 ④ 속세를 떠나 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뜻.
43. [亡羊補牢]
 ①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
 ②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
 ③ 하는 일에는 뜻이 없고 다른 생각만 하다가 낭패를 봄.
 ④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

44. [杵臼之交]
 ① 한 번 만나 본 정도의 친분.
 ②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③ 단지 이익만을 위한 교제.
 ④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귀.
45. [遼東豕]
 ① 희귀하고 값진 물건.
 ② 견문이 좁아 세상일을 모르고 저 혼자 득의양양함.
 ③ 먹기를 탐내는 사람.
 ④ 여러 번 옮겨 쓰다 보면 반드시 잘못 쓴 글자가 생김.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居士有鏡一枚러니 塵埃侵蝕하여 掩掩如月之翳雲이라 然朝夕覽觀에 似若飾容貌者러라 客見而問曰 鏡所以鑑形이니 不則君子對之에 以取其淸이어늘 今吾子之鏡은 濛如霧如하여 既不可鑑其形이요 又無所取其淸이라 然吾子尙炤不①已하니 豈有理乎아 居士曰 鏡之明也는 妍者喜之하고 醜者忌之라 然이나 妍者少하고 醜者多라 若一見이면 必(㉠)後已니 不若爲塵所昏이라 塵之昏은 寧(㉡)其外언정 未②喪其淸이라 萬一遇妍者而後에 磨拭之라도 亦未晚也라 噫 古之對鏡은 所以取其(㉢)이요 吾之對鏡은 所以取其(㉣)이니 子何怪哉오 客이 無以對러라

〈東國李相國集〉

46. 문맥상 ㉠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① 뿐이다 ② 너무 ③ 이미 ④ 그치다
47.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 磨拭 ② 掃除 ③ 破碎 ④ 容貌
48.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 奪 ② 蝕 ③ 飾 ④ 觀
49.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문맥상 ㉣의 뜻과 같은 것은?
 ① 得喪 ② 心喪 ③ 初喪 ④ 喪服
50. 문맥상 ㉢와 ㉣에 들어갈 漢字로 알맞은 것은?
 ① ㉢: 淸, ㉣: 昏 ② ㉢: 昏, ㉣: 淸
 ③ ㉢: 外, ㉣: 內 ④ ㉢: 容, ㉣: 心

주관식 I (주1~주100번)

■ [주관식 I]의 답은 [OCR답안지]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 獠 ()
- 주2. 挫 ()
- 주3. 糴 ()
- 주4. 鮫 ()
- 주5. 洄 ()
- 주6. 攄 ()
- 주7. 肄 ()
- 주8. 銹 ()
- 주9. 縞 ()
- 주10. 杠 ()
- 주11. 睛 ()
- 주12. 迢 ()
- 주13. 迥 ()
- 주14. 麾 ()
- 주15. 勅 ()
- 주16. 癩 ()
- 주17. 荳 ()
- 주18. 邃 ()
- 주19. 紘 ()
- 주20. 齟 ()
- 주21. 譁 ()
- 주22. 賡 ()

※ 한자의 부수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23. 晃 ()
- 주24. 惹 ()
- 주25. 樊 ()
- 주26. 乖 ()

※ 훈과 음에 맞는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27. 갓끈 리 ()
- 주28. 악창 웅 ()
- 주29. 조심할 기 ()
- 주30. 접을 접 ()
- 주31. 새길 전 ()

- 주32. 부풀 팽 ()
- 주33. 꺾을 최 ()
- 주34. 돌무더기 퇴 ()
- 주35. 농막 서 ()
- 주36. 고치 견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頹	倡	暘	翡	褐	罌	槌	揖
------	---	---	---	---	---	---	---	---

- 주37. ○道 率○ ○義 ()
- 주38. ○讓 長○ ○禮 ()
- 주39. ○變 裘○ 茶○色 ()
- 주40. ○落 敗○ ○廢 ()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41. 孱子 ()
- 주42. 葫蒜 ()
- 주43. 簪笏 ()
- 주44. 羈絆 ()
- 주45. 蕙苴 ()
- 주46. 篋篋 ()
- 주47. 麤鹵 ()
- 주48. 罄竭 ()
- 주49. 瑣屑 ()
- 주50. 弩箭 ()
- 주51. 匙楪 ()
- 주52. 纏繞 ()
- 주53. 盥漱 ()
- 주54. 檇蒲 ()
- 주55. 鋟鏤 ()
- 주56. 韭菹 ()

※ []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

- 주57. 그들은 [영악무도]한 침략자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였다. ()
- 주58. 그는 아주 [영악]하고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이다. ()
- 주59. 영국의 구빈법은 사회 정책의 [효시]로서 오늘날 커다란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
- 주60. 예전에는 죄인을 처형한 후에 나무에 달아 [효시]를 하기도 했다. ()

※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

주61. 物體에서 放出하는 電磁氣波를 直接 物體가 吸收하여 熱로 變했을 때의 에너지를 輻射熱이라 한다.

(→)

주62. 政府는 國民 經濟의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未艱地 開發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

주63. 그의 형은 訓練 途中 입은 부상으로 轉役하게 된 傷弛軍人이다.

(→)

주64. 船廠에는 멀치잡이 漁船 대여섯 隻이 줄지어 서 있었고 荷役을 돕는 일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

주65. 親舊는 粧物인 줄도 모르고 寶石을 샀는데 原主人이 그를 도둑으로 잡아 버렸다.

(→)

※ 풀이에 맞게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주66. [상감청자]: 상감 기법을 이용하여 무늬를 넣은 청자. ()

주67. [와굴]: 나쁜 짓을 하는 도둑이나 악한 따위의 무리가 활동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곳. ()

주68. [감실]: 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 두는 장. ()

주69. [경제공황]: 경제계가 급격한 혼란에 빠져 산업이 침체하고 금융이 팽박하여 파산자가 속출하는 현상. ()

주70. [포효]: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음. 또는 그 울부짖는 소리. ()

주71. [난안]: 부끄럽거나 창피하여 얼굴색이 붉어짐. 또는 그런 얼굴. ()

주72. [홍예]: 무지재. ()

주73. [습벽]: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 버릇. ()

주74. [회신]: 불에 타고 남은 꼬트러기나 재. ()

주75. [후각]: 냄새를 맡는 감각. ()

※ 문장 속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주76. 사이버 학자들에 의해 과거사가 [날조]되고 있다. ()

주77. 태풍이 휩쓸고 간 마을의 모습은 [참담]했다. ()

주78. 등산객들은 [농선]을 타고 산을 내려갔다. ()

주79.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범패]라고 한다. ()

주80. 땅 구멍 속에 사는 [설치류]는 눈의 발육이 불완전하고 눈이 거의 털로 덮인 경우도 있다. ()

주81. 경기 중 부상을 입은 그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주82. 누명을 쓴 것이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

주83. 군인들은 낮은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했다. ()

주84. 그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했다. ()

주85.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안주로 해서 [고량주]를 마셨다. ()

주86.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 ()

주87. 그는 [양심]과 살기를 머금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

주88.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압착]을 한 후에 버려 주세요. ()

주89. [졸사간]에 불이 번져 옆 건물까지 타 버렸다. ()

주90. 삼월 삼진날 봄맞이 행사의 하나로 진달래꽃에 찹쌀가루를 묻혀 끓는 기름에 띄워 지진 [두견화전]을 부쳐 먹었다. ()

※ []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91. [抱頭鼠○] 무서워서 머리를 싸쥐고 얼른 숨음. ()
- 주92. [一○千金] 힘들이지 아니하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 ()
- 주93. [束○之禮] 제자가 되려고 스승을 처음 뵈는 때에 드리는 예물. ()
- 주94. [毫○之差] 아주 근소한 차이. ()
- 주95. [一覽○記] 한 번 보면 다 기억한다는 뜻으로, 총명하고 기억을 잘함. ()
- 주96. [自作之○]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재앙. ()
- 주97. [○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 주98. [○人廣座] 여러 사람이 뻐뻐하게 많이 모인 자리. ()
- 주99. [左右顧○] 앞뒤를 재고 망설임. ()
- 주100.[○蠶食之]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점차 조금씩 침략하여 먹어 들어감. ()

주관식 II (주101~주150번)

■ [주관식III]의 답은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기하시오.

- 주101. 지난주에 새로 구입한 공기 청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靑氈舊物]이 되어버렸다. ()
- 주102.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盲龜浮木]에 비유할 수 있다. ()
- 주103.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모처럼 [忙中偷閑]을 즐겼다. ()
- 주104. 그가 이번에 출품한 세공품은 작은 흠집이나 티끌조차 없이 정교하고 아름다워 그야말로 [玉石混淆]라 할 만하다. ()

※ []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05. 옛 사람들은 서양인의 모습을 [‘파란 눈과 검붉은 수염’]이라고 표현했다. ()
- 주106. 어려서부터 [물건을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써 버리거나 아껴 쓰지 아니하고 함부로 버리면] 커서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 주107. 그의 약속은 [계포가 허락한 한 마디의 말]처럼 신의가 있다. ()
- 주108. 한 동네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익을 다투는 것은 [달팽이의 더듬이 위에서 다툼]을 벌이는 것과 같다. ()

※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

- 주109. 汗出沾背 ()
- 주110. 佩瓢捉風 ()
- 주111. 蟹網俱失 ()
- 주112. 白駒過隙 ()

※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

- 주113. 盜之就拿 厥足自麻 ()
- 주114. 他人之宴 曰梨曰柿 ()
- 주115. 緩驅緩驅 牡牛之步 ()
- 주116. 未有窪溝 而產神蛟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矜亦雖淫與苟以直如哀誠且敢

- 주117. 關雎 樂而不○ ○而不傷 《論語》
(,)
- 주118. ○不百步耳 是○走也 《孟子》
(,)
- 주119. 飯蔬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貴 於我 ○浮雲 《論語》
(,)
- 주120. ○非吾之所有 ○一毫而莫取 《赤壁賦》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險亡謙佞習識慎陷驅厭怠肅貴

- 주121. 默而○之 學而不○ 誨人不倦 《論語》
(,)
- 주122. ○之死地而後生 置之○地而後存 《史記》
(,)
- 주123.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 故 君子 必○其獨也 《大學》
(,)
- 주124. 賢婦 令夫○ ○婦 令夫賤 《明心寶鑑》
(,)

※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주125. 今人之性 生而有好利焉 順是故 [奪 亡 辭 生 讓 焉 而 爭] 《荀子》

국역: 지금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다투어 빼앗음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

주126. 利人之言 暖如綿絮 [荊之言如利人傷棘] 《明心寶鑑》

국역: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 같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다.
()

주127. [學 知 也 至 不 不 有 雖 善 道 其] 《禮記》

국역: 비록 지극한 도가 있다 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 좋은 점을 알지 못한다.
()

주128. [飲 已 而 食 不 美 飢 救 甘 可] 《擊蒙要訣》

국역: 음식은 달고 맛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구원할 뿐이다.
()

※ [] 부분을 국역하시오.

주129. 天之生物 必因其材而篤焉 [故 栽者培之 傾者覆之] 《中庸》
()

주130. [不信乎朋友 不獲乎上矣] 《中庸》
()

주131.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 君子 《論語》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有客> - (㉠)
有客清平寺 春山任意遊
鳥啼孤塔靜 花落小溪流
㉠佳菜智時秀 香菌過雨柔
行吟入仙洞 消我百年愁

(나) <㉡奉使入金> - 陳華
西華已㉡蕭索
北塞尙昏夢
坐待文明旦
天東日欲紅

(다) <登金陵鳳凰臺> - 李白
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
吳宮花草埋幽徑 ㉢晉代衣冠成古邱
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白鷺洲
總爲浮雲能蔽㉣日 長安不見使人愁

주132. 字는 ‘悅卿’, 號는 ‘梅月堂’인 ㉠의 姓名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33. ㉠을 국역하시오. ()

주134. ㉡을 국역하시오. ()

주135. ㉢의 뜻을 쓰시오. ()

주136. ㉣을 국역하시오. ()

주137. ㉣이 의미하는 인물을 쓰시오. ()

주138. (다)의 詩 形式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古之學者는 必有師니 師者는 所以傳道授業解惑也라 人非生而知之者니 孰能無惑이리오 惑而不從師면 其爲惑也는 終不解矣라 生乎吾前하여 其聞道也가 固先乎吾면 吾從而師之요 生乎吾後라도 其聞道也가 亦先乎吾면 吾從而師之라 吾㉔師道也니 ㉑夫庸知其年之先後生於吾乎리요 是故로 無貴無賤하고 無長無少요 道之所存이 師之所存也라 嗟乎라 師道之不傳也가 久矣니 欲人之無惑也가 難矣라 古之聖人은 其出人也가 遠矣로대 猶且從師而問焉이여 今之衆人은 其下聖人也가 亦遠矣로대 而(㉒)學於師하니 是故로 聖益聖하고 愚益愚라 聖人之所以爲聖과 愚人之所以爲愚는 皆出於此乎인지 愛其子하여는 擇㉓師而教之로되 ㉔於其身也엔 則恥師焉하니 惑矣로대 彼童子之師는 授之書而習其㉕句讀者也니 非吾所謂傳其道解其惑者也라 句讀之不知와 惑之不解에 或師焉하고 或不焉하여 小學而大遺하니 吾未見其明也로라

《古文眞寶》

주139. 문맥상 ㉑와 ㉒의 품사를 차례대로 쓰시오.

(㉑: _____, ㉒: _____)

주140. ㉑을 국역하십시오.

(_____)

주141. 문맥상 ㉑에 들어갈 1음절 漢字(正字)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_____)

주142. ㉒을 국역하십시오.

(_____)

주143. ㉓의 독음을 쓰시오.(_____)

주144. 지은이가 주장하는 ‘스승의 역할’ 세 가지를 우리말로 풀어서 쓰시오.

(_____)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凡讀書者 必端拱危坐하여 敬對方冊하여 專心致志하고 精思涵泳하여 深解義趣하고 而每句에 必求㉑천리之方이니 若(㉒)讀而(㉓)不體(㉔)不行이면 則書自書 我自我니 何益之有리오 先讀小學하여 於事親敬兄 忠君弟長隆師親友之道에 一一詳玩而力行之할지니라 次讀大學及或問하여 於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에 一一眞知而實踐之할지니라 次讀論語하여 於求仁爲己涵養本原之功에 一一精思而深體之할지니라 次讀(㉕)하여 於明辨義利遏人慾存天理之說에 一一明察而擴充之할지니라 次讀中庸하여 於性情之德과 推致之功과 位育之妙에 一一玩索而有得焉할지니라. 次讀詩經하여 於性情之邪正과 善惡之褒戒에 一一潛繹하여 感發而懲創之할지니라. 次讀(㉖)하여 於天理之節文과 ㉗의칙之度數에 一一講究而有立焉할지니라 (중략) 凡讀書에 必熟讀一冊하여 盡曉義趣貫通하여 無疑然後에 乃改讀他書니 不可多務得하여 ㉘망박涉獵也니라

《㉙격몽요결》

주145. ㉑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_____)

주146. 문맥상 ㉒, ㉓ 및 ㉔에 들어갈 漢字(正字)를 차례대로 쓰시오.

(㉒: _____, ㉓: _____, ㉔: _____)

주147. ㉕과 ㉖에 들어갈 書名을 漢字(正字)로 차례대로 쓰시오.

(㉕: _____, ㉖: _____)

주148. ㉗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_____)

주149. ㉘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_____)

주150. 書名 ㉙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_____)

- 수고하셨습니다 -

합격자 발표: 2021. 6. 17. (목)

결 과 조 회: 홈페이지 (www.hanja114.org) 접속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필수 기재)

제104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1)

■ 객관식 ■

1	④	6	④	11	③	16	②	21	③	26	④	31	③	36	②	41	③	46	④
2	②	7	③	12	④	17	③	22	②	27	③	32	③	37	①	42	③	47	③
3	③	8	④	13	①	18	①	23	①	28	②	33	④	38	③	43	①	48	②
4	①	9	②	14	③	19	④	24	④	29	③	34	②	39	④	44	④	49	①
5	①	10	①	15	②	20	②	25	④	30	①	35	①	40	④	45	②	50	①

■ 주관식 I ■

주1	교활할 회	주21	시끄러울 화	주41	잔혈	주61	輶→輻	주81	靱帶
주2	꺾을 좌	주22	이을 갱	주42	호산	주62	艱→墾	주82	抑鬱
주3	쌀사들일 적	주23	冂	주43	잠홀	주63	弛→痠	주83	匍匐
주4	떡 고	주24	心	주44	기반	주64	廠→艙	주84	敷衍/演
주5	마를 학	주25	木	주45	의이	주65	粧→贓	주85	高粱酒
주6	펼 터	주26	ノ	주46	보귀	주66	象嵌靑瓷	주86	暗礁
주7	익힐 이	주27	纏	주47	추로	주67	窩窟	주87	快心
주8	녹슬 수	주28	癰	주48	경갈	주68	龕室	주88	壓搾
주9	명주 호	주29	夔	주49	쇄설	주69	經濟恐慌	주89	猝乍間
주10	깃대 강	주30	摺	주50	노전	주70	咆哮	주90	杜鵑花煎
주11	눈동자 정	주31	鑄	주51	시접	주71	赧顏	주91	竄
주12	멀 초	주32	膨	주52	전요	주72	虹霓	주92	攫
주13	멀 형	주33	摧	주53	관수	주73	習癖	주93	脩
주14	대장기 휘	주34	磊	주54	저포	주74	灰燼	주94	釐
주15	셀 경	주35	墅	주55	삼루	주75	嗅覺	주95	輒
주16	미칠 전	주36	繭	주56	구저	주76	捏造	주96	孽
주17	들깨 임	주37	倡	주57	獍惡無道	주77	慘愴/澹	주97	輶
주18	깊을 수	주38	揖	주58	靈惡	주78	稜線	주98	稠/衆
주19	질낮은명주실 흘	주39	褐	주59	嚆矢	주79	梵唄	주99	眇
주20	어긋날 저	주40	頽	주60	梟示	주80	齧齒類	주100	稍

제104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2)

▣ 주관식 II ▣

주101	X	주118	直, 亦	주135	고요하고 쓸쓸하다
주102	O	주119	且, 如	주136	진나라 관리들은 옛 무덤이 되었구나
주103	O	주120	苟, 雖	주137	당 현종
주104	X	주121	識, 厭	주138	七言律詩
주105	碧眼紫髯	주122	陷, 亡	주139	㉠: 동사, ㉡: 명사
주106	暴殄天物	주123	謙, 慎	주140	그 나이가 나보다 먼저 태어나고 뒤에 태어남을 어찌 따지겠는가
주107	季布一諾	주124	貴, 佞	주141	恥
주108	蝸角之爭	주125	爭奪生而辭讓亡焉	주142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스승으로 삼기를 부끄러워하니
주109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심	주126	傷人之言 利如荊棘	주143	구두
주110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헛되이 하려 함	주127	雖有至道 不學 不知其善也	주144	도를 전해주고 학업을 가르치며 의혹을 풀어주는 것.
주111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밑천까지 잃음	주128	飲食 不可甘美 救飢而已	주145	踐履
주112	인생이나 세월이 덧없이 짧음	주129	그러므로 심은 것은 복돋워 주고 기운 것은 얹어버리는 것이다.	주146	㉠: 口, ㉡: 心, ㉢: 身
주113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주130	벗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면 윗 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한다.	주147	㉣: 孟子, ㉤: 禮經/記
주114	남의 잔치[장/제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주131	바탕이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꾸밈이 바탕을 이기면 걸치레만 잘함이다	주148	儀則
주115	느릿느릿 [드문드문 / 띄엄띄엄] 걸어도 황소걸음.	주132	金時習	주149	忙迫
주116	개천에서 용 난다	주133	아름다운 나물은 때를 알아 돌아나고	주150	擊蒙要訣
주117	淫, 哀	주134	사신으로 명령을 받들어 금나라에 들어가며		